

# 평화의 사도

재속 프란치스코 피닉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준비형제회 월보

Secular Franciscan Order of Phoenix  
St. Daegun Andrew Kim's Forming Group



평화의 사도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라

2007년 11월 (제 41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님, 당신을 항상 생각함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을 항상 갈망함으로써 목숨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의 모든 지향을 당신께 두고 매사에 당신의 영예를 찾음으로써 생각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의 모든 힘과 영육의 감각을 다른 데에 허비하지 않고 당신 사랑의 봉사를 위해서만 바침으로써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이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저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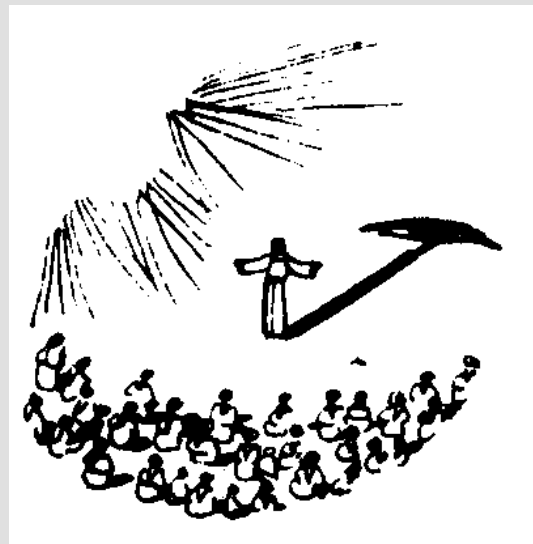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을 이끌고

다른 이들의 선을 마치 저희 것인 양 즐거워하며,

불행 중에 있는 이들을 동정하고,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음으로써

저희 몸과 같이 저희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풀이 중에서

월례회: 매월 4째 토요일 오후 4시, 회관 2211 S. Kachina Dr., Tempe, AZ 85282, (480)968-4417

영적 보조: 장민호 미카엘신부, 2211 S. Kachina Dr., Tempe, AZ 85282, (480)968-4417

Minister: Michael Reidy (480)722-9446

## 입회기 양성교재 ‘폰테 콜롬보’

### <제22과> 형제회의 입회와 양성 및 회원관리

#### 회칙 3장 형제회의 생활

제 23조 재속 프란치스코회 입회 신청서는 각 단위 형제회에 제출하며, 평의회가 새 형제들의 입회를 결정한다. 정회원 입적은 일정한 지원기와 적어도 1년간의 양성기를 거쳐 회칙에 대한 서약으로 이루어진다. 이 점진적인 과정에서 전체 형제회도 회원들의 생활 태도를 통해 책임져야 한다. 서약을 하는 연령과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독자적 표지는 규정으로 정한다. 서약은 그 성질상 영구적인 의무이다.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은 평의회에서 형제적인 대화로 자신의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각 형제회의 평의회는 잠정적 퇴회 또는 필요하다면 결정적인 제명을 회헌에 따라 결정 한다.

회헌 제56조 1. 어려움에 처한 회원은 형제회로부터 잠정적 퇴회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회장과 영적보조자가 당사자와 형제적 대화를 나눈 다음, 평의회는 사랑을 갖고 또 신중하게 이 요청을 평가한다. 동기가 합당하면 그 형제에게 다시 생각할 여유를 준 다음에 평의회는 그의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2. 형제회의 생활이 요구하는 의무를 반복하여 또 장기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회칙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행동을 한 회원에 대해 평의회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거나 경고 후에도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 평의회는 비밀 투표로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3. 자발적인 퇴회나 정지처분은 형제회의 기록부에 명기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제회에 속해 있으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하여 형제회의 회합이나 활동에서 제외된다.

**형제회의 입적** 형제회원이 되려면 **지원기**, **양성기** 그리고 **서약**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양성의 주체는 성령이시고 양성의 대상자인 청원자는 성령께 자신을 내놓고 따라야 한다. 양성의 1차적 책임은 청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청원자는 스스로 자신의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원기**는 청원자에게 프란치스코 성소가 있는지를 식별하는 시기이며 약 1년 정도이다. 형제회는 지원자를 잘 보살피어 형제회생활을 감정이나 호기심보다는 진지함으로 식별하고 스스로 입회를 청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입회 신청서는 단위형제회에 제출되며, 평의회에 결정에 따른다. 입회 조건은 1)가톨릭 신앙을 고백할 것, 2)교회와 친교 가운데 살 것, 3)윤리적 품행이 방정할 것, 4)성소의 분명한 표시를 보여 줄 것 등이다. 지원기를 마치고 입회한 후에는 양성기가 시작된다. **양성기**는 하느님의 마음을 닮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회개 생활의 시작으로, 약 2년에 걸쳐 단위형제회의 각종 모임에 참여하여 공동기도와 형제회 생활을 배운다. 이 기간동안 회원은 1) 자주 성서를 읽고 묵상하여 그리스도를 본받고 2) 성 프란치스코의 인격과 글 그리고 프란치스코 영성을 배우고 3) 회칙과 회헌을 공부하고 4) 교회를 사랑하고 교도권을 받아드리도록 교육 받아야 하며, 5) 현세의 임무안에서 복음 생활의 표상이 드러나도록 양성되어 프란치스코 성소가 지향하는 생활양식에 따라 **능동적**으로 살아 가도록 해주는 것이다. **서약**

은 교회가 인준한 회칙과 회헌에 따라 복음적 생활을 서원함으로써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것으로 교회의 공적인 증인인 사제앞에서 이루어지며 그 성질상 영구적인 의무이다. **청원자**는 서약을 통하여 1) 형제회에 소속하게 되며, 2) 세례를 갱신하고 3) 회칙을 따라 복음을 살임무를 공적으로 확인하게 되며, **교회**는 서약을 허가해주고 청원자를 받아들이며 영적 윤리적인 도움을 서약자에게 약속한다.

**영속적 양성** 서약이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속적 양성**은 회원이 서약생활을 시작한 후, 삶을 마칠 때까지 이루어지는 개인적, 공동체적 여정이다. 가정과 일터에서, 현실 생활 전반에서 가난하고 겸손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회원 관리** 평의회는 입회, 전출입, 잠정 또는 결정적 처분 등 행정적인 제반 사항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회원을 관리한다. 회원은 합당한 이유로 다른 형제회로 전출을 희망하면, 소속하고자 하는 형제회 회장에게 전입 사유서를 제출하며, 평의회에서 전입을 결정한다. 서약자가 서약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잠정적 처분을 형제회에 요청할 수 있다. 결정적 퇴회에는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회 2) 중대하고 외적이며 고의적 과실에 따른 형제회의 결정에 의한 결정적 퇴회 3) 공적으로 신앙을 버렸거나 교회와의 친교적 삶을 살지 않거나 또는 경고 후 파문 선고를 받은 회원의 자격박탈등이 있다.

## 성 프란치스코 영적인 권고 <28. 은총의 선물을 잃지 않도록 감출 것입니다>

- 1 주님께서 배풀어 주시는 은총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고"(마태 6,20), 또한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종은 복됩니다.
- 2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업적들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3 주님의 비밀을 "자기 마음 속에 간직하는"(루가 2,19.51) 종은 복됩니다.



## 타 미주 지역 형제회 소식

♥ 양성 교제는 지원반은 "아씨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입회반과 서약 준비반은 "폰테 콜롬보"를 2년 과정 교제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오늘 입회식이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입회자들을 축하합니다.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2007년 10월 월보>

♥ 사부님의 추도식이 10월 3일 Holy Land에서 7시에 있었습니다.

<워싱턴 성녀 클라라 형제회 10월 월보>

♥ 10월 월례회가 28일 있었습니다. 샌디에고 역사상 가장 큰 화재 중 겪었던 많은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를 챙기는 세레나 자매에게 감동했다', '대피하여 몇일 함께 생활하며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의적을 생각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어 죄책감이 든다. 6.25 사변때 기억이 떠올랐다', '아무 생각 없다 막상 남들이 물건을 챙기는 것을 보고 욕심이 들었다', '나만 피해가 없음을 감사해야할지



모르겠다', '막상 대피시 무엇을 챙길지 몰랐고,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임을 깨달았다', '대피지역의 형제들이 생각났다. 사랑의 소중함을 느꼈다', '서로 돕는 모습이 좋았다', '설마하고 출근하였다. 한 전화보다는 받은 전화가 많았다. 삶의 우선 순위를 다시 짚어보는 기회가 되었다', '대피소식 듣고 오고 싶었으나 오지 못해 약이 올랐다', '여러 사람을 챙긴 미셀자매의 생각이 들었다'

<성대예고형제회 10월 월보>

♥11월 4일 지구형제회에서 형제적/사목적 방문을 하여 평의회원과 형제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김기수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오는 12월 23일 월례회를 방문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11월 월보>

## 피닉스 준비형제회 소식 및 회계보고

♥ 12월 9일(일) 오후 2시에 Peace 형제회의 성탄파티가 있습니다. 음식은 potluck으로 준비 되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2008년 1월 저희 월례회에 지구형제회 회장 리처드 빌라마나의 형제적 방문과 지구 영적보조자 데이비드 수사님의 사목적 방문이 있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1/30 김미대자 데레사

### <회계보고 10월말>

	항목	금액	합계
이월			701.65
수입	회비 (10월)	\$380.00	
잔고			\$701.65

##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

글 : 최인호 베드로

프랑스가 낳은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1853~1890)는 평생 동안 12장의 자화상을 그렸다.  
그가 그린 자화상은 대부분 권총으로 자살하기 3년 전에 시작해서 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린 작품이었다.

'죽을 때까지 정신병원에 갇혀 있더라도 얼마든지 그림 그릴 재료는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고흐에게 있어 자신의 얼굴이야말로 그가 마음 놓고 그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소재였다. 그의 자화상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표정으로 점점 더 침울해 가고 얼굴은 말라가고 두 눈은 점점 더 광기에 젖어가고 있다.

죽기 전 자화상을 완성하고 나서 고흐는 이렇게 말했다.

"내 자화상은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이다."

주님, 고흐의 말처럼 나도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 그 자체입니다.

내 말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내 행동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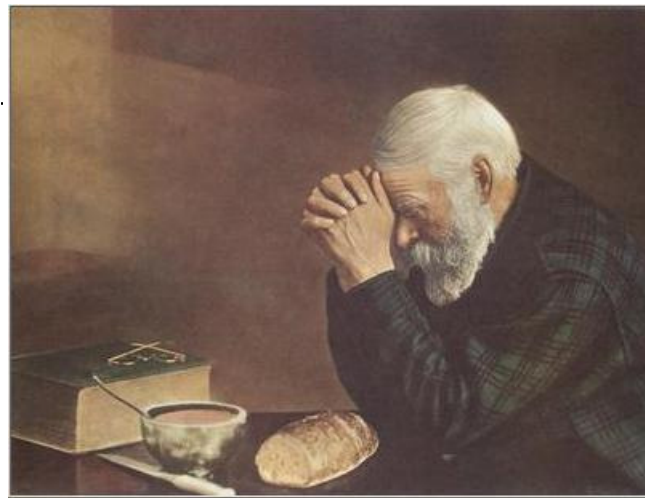
주님, 나는 비겁한 쥐처럼 겁이 많으면서도

항상 만용을 부리고 있습니다.

남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내 행동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듯 그들이 하는 생각이 말과 행동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남에게 잘보이고 싶으며,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으며, 남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으며, 남으로부터 잊혀지지 않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은 실제의 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고흐의 탄식처럼 나는 거대한 거짓말 그 자체입니다.

오오, 나의 전부이신 주님.

이제야 알겠으니 나를 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남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실한 나를 되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로지 주님에게만 보이기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나는 주님에게만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나이다.

내가 진실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잊혀지지 않고 싶은 분은 오직 단 한 사람, 우리 주 예수그리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나를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 하늘에서 내려온 빵 중에서 》